

지식인들은 스스로 엘리트라고 생각한다.
 라이프스타일에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엘리트,
 즉 경제 엘리트보다 자신이 뒤처진다면,
 지식인들에게 이것은 체제의 불공정함을 탓할 요인이다.
 특히 지식인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경제 엘리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식인들의 반자본주의는 이러한 체제의 책임자,
 즉 자본주의자들에 대한 질투에서 비롯된 셈이다.

지식인들은 부자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수단과 방법으로 부를 얻는다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다”와 같은
 설명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식인들은 자신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기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유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결과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비판한다.
 이것이 반자본주의가 생긴 주된 요인이다.

『지식인들은 왜 자본주의를 싫어할까』 중에서

국가의 시장 개입이 부를 위협한다! 자유 시장경제는 문제가 아니라 답이다!

역사를 잇는다면 미래는 없다

한국과 북한, 동독과 서독, 칠레와 베네수엘라 등
 5대륙 시간 여행으로 본 흥미진진한 팩트와 연구!

우리 집 거실에도 텔레비전 등 우수한 품질의 대한민국 제품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
 국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에 감탄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일궈온 경제적 성과
 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을 경제 강국으로 만든 마법의 공식은 자
 본주의와 교육열입니다. 여러분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이 길을
 계속 걷는다면 눈부신 미래가 보장될 것이고,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는 많은 나라들에게 귀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이 책은 자본주의 지지자들에게는 필독서이고, 비판론자들에게는 자극제다. 철저한 조사를 바
 탕으로 한 사실과 수치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지텔만 박사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참신한 관점
 의 논증을 펼친다. 특히 10장 ‘지식인들은 왜 자본주의를 싫어할까?’에서는 그의 독창적인 고
 찰이 돋보인다. 『허핑턴 포스트』

지텔만은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비교한다. 지식인들이 한낱 신기루와
 같은 논증 방식을 좋아하는 이유를 낱알이 파헤친다. 사회주의적 유토피아 사상에 불들린 불안
 전한 사고를 비판한다. 우월감과 열등감, 질투와 거만함 등 지금까지 등한시되어 왔던 사회심
 리학적 측면까지 다루고 있다. 『노이에 취리히 자이퉁』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는 정말 매력적이고 알찬 내용으로 가득한 책이다.
 『에덤 스미스 연구소』



봄빛서원

봄빛서원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라이너 지텔만 지음
 강영욱 옮김

Kapitalismus ist nicht das Problem, sondern die Lösung

부유한 자본주의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역사가 말해주는 것들

가난한 사회주의



라이너 지텔만 지음 | 강영욱 옮김

지은이
라이너 지텔만 Dr. Rainer Zitelmann

역사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다.
 베를린자유대학교에 재직하다가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중 하나로 전국 신문인 <디 벨트>의 편집국장을 지냈다. 21권의 저
 서는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45명의 억만장자를 인
 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웰스 엘리트 The Wealth Elite』에서는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70퍼센트가 영업직을 거쳐 사업가로 성공한 사실을 밝혀
 내며 세일즈 능력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는 출간 즉시 독일 아마존 베스
 트셀러에 오른 책으로 다양한 방면에 풍부한 저자의 지식을 집대성
 한 수작이다. 단순하고 감정적인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역사적 자
 료와 사실에 근거해 독자들을 이해시킨다.
 존경받는 기업인이기도 한 그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과 각종 인
 터뷰 출연 및 유명 일간지에 활발한 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 대중성
 과 전문성이 널리 알려진 인물로 학계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아 많
 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낸다.

옮긴이
강영욱

덕성여자대학교 독어독문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
 역대학원 한독과에서 공부한 후 여러 기관에서 통번역 활동을 했다.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기획자 및 전문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인플레이션』, 『자연의 비밀 네트워크』
 등이 있다.

봄빛서원은 밝은 생각을 전합니다.

봄빛서원

부유한
자본
주의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역사가 말해주는 것들

가난한
사회
주의